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에 따른 석유·가스 수급 영향 긴급 점검

- 산업부장관 주재 「비상상황 점검회의」 개최 (2.28일 19시) -

김정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한국시간 2.28.(토) 15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함에 따라 19시에 산업부 내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가스 등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하였다.

* (산업부) 장관, 산업자원안보실장,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중동 아프리카통상과장, (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기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KOTRA, 대한 석유협회, 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 등

긴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유조선·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우회항로 확보 등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제 원유·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중동 수급 차질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업계에서는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수급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체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가격 동향과 중동 정세, 유조선·LNG선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석유공사에게는 “석유공사 해외생산분 도입,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메뉴얼상 조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산업부 소관 부서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여 향후 사태의 전개 추이를 일일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전개에 맞게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열규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44-203-5223)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장(代)	한주현 (044-203-5231)
		담당자	사무관	김정미 (044-203-5233)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중엽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5723)